

# Gordon W.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成熟의 概念과 宗教的 含意

金 龍 變 \*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나타난 特異性
  2. 1. Personality의 個體性(Individuality)
  2. 2. "Real Man"으로서의 Personality의 特徵
  2. 3. 研究對象 - 正常人的 正常現像
3. Personality의 基本概念
  3. 1. Personality의 定義
  3. 2. Personality의 個體性
  3. 3. Personality의 力動性
  3. 4. 動機의 概念 - 機能的 自律性
  3. 5. Personality의 有機的 統一性 - Proprium과 Traits
4. Personality의 成熟
  4. 1. 成熟의 概念
  4. 2. 成熟의 基準
5. Allport의 理論에 있어서의 宗教的 次元
  5. 1. 人格成熟의 最高次元으로서의 宗教性
  5. 2. Allport의 理論에 있어서의 宗教의 本質的 性格
  5. 3. 成熟한 宗教性(宗教的 感情)의 特徵
  5. 4. 宗教的 成熟의 基準과 性格
6. 맺는 말

## 參 考 書 籍

\*名譽教授(기독교교육과)

## 1. 들어가는 말

G. W. Allport는 既存의 雜多한 personality theory들을 정리하여 系列에 따라 그 概念들을 體系化하고<sup>1)</sup> 그동안 여러 心理學者들에 의해 전개되어 오던 persononality에 대한 理論들의 盲點과 未洽함에 착안하여 이를 打破하고 나름대로의 獨創的인 理論을 體系化하는 등 斯界에 획기적인 貢獻을 한 美國의 心理學者이다.

그의 personality theory는 以前의, 그리고 當代의 다른 심리학자들의 그것들과는 뚜렷하게 區別되는 特徵을 지닌 것이었고, 이러한 特異한 이론의 바탕 위에서 그는 人間性(personality) 發達의 窮極的인 目標로 成熟(maturity)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의 延長 線上에서 人間성이 到達하고 實現해야 할 宗教의 次元을 想定하고 있다.

自然 狀態의 未成熟한 人間에게 가해지는 教育을 포함한 모든 人爲的, 形成的 作用이 志向하는 窮極的인 도달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人間 個體(person)가 지니고 태어난 潛在的 要素들을 發掘, 伸長하여 그 力量을 極大化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人間성 발달의 到達點(goal, end-point)은 여러가지로 指稱될 수 있을 것이다. Allport는 이러한 段階에 到達한 狀態를 成熟이란 말로 표현하고 이 成熟의 狀態를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숙을 이룩한 個人(person)이 進入할 단계로 그는 宗教的 次元을 제시하고 있다.

本 研究는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가 펼치고 있는 광범위한 국면들 중에서 상술한 관점에 집중하여 그의 思想을 探索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과업을 달성키 위해 필자는 다른 심리학자들의 그것들과 구별되는 그의 personality theory의 特徵들을 몇가지 制限된 觀點에서 살펴 보고 그의 理論 體系의 根幹이 되는 personality의 基本概念의 骨格을 개관한 다음 본 연구의 關心 主題에 대해 接近해 보려 한다.

## 2. Allport의 Personality Thoery에 나타난 特異性

Allport의 personality 理論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當時의 다른 심리학자들의 그것들과는 뚜렷히 區別되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 그는 당시의 心理學 研究의 支配的인 趨勢였던 精神分析學派의 無意識에 대한 強調나 一般心理學者들의 投射的 檢證法을 통한 personality 탐구에 있어서의 數量化 傾向이나 人性(personality)의 社會的 側面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서 비롯된 그 個的 特性의 輕視 風潮를 타파하고 자신의 고유한 이론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면 그의 personality 이론이 다른 그것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몇가지 주요

1) Allport는 personality theory를 다른 심리학 문헌들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기존의 허다한 personality 이론들에서 50개에 달하는 personality에 대한 정의들을 抽出하고, 이들을 공통된 특징적 계열에 따라 다시 몇개의 광범위한 범주의 정의들로 분류한 바 있다. “생물-사회학적 정의” “biosocial definition”, “생물-물리학적 정의”(biophysical definition), “총괄적 정의”(rag-bag or omnibus definition) 등의 유형적 정의들이 그 예이다.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1937 ; Calvin S. Hall & Garbner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i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57, p. 8-9.

한 국면들에 대해 고찰해 보자.

### 2. 1. Personality의 個體性(Individuality)

Allport의 personality 이론에서 다른 학자들의 그것들과 구별되는 特徵들 중 첫째 국면은 personality의 個體性에 관한 것이다. 生物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諸 屬性들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personality에 대한 당시의 탐구는 그 共通성과 同一性(uniformity)을 근거로 해서 生物-心理-社會學的인 接近을 통해 더러는 personality를 刺戟-反應의 結合過程에 있어서의 因果的, 機械的 작용에 의해 규정되는 單純한 有機的 實體로, 혹은 潛在的 衝動性의 발로에 의해 움직이는 盲目的인 行動體로, 그렇지 않으면, 집단力動的 相互關係에 의해 作動되는 단순한 社會的 單位로 格下하거나 抽象化하거나 一般化하는 次元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一般的 추세였다. Allport는 이러한 一般적 傾向을 배격하고 사람의 personality의 中樞的 實體를 무엇보다도 그 個體性(individuality)에서 찾으려 시도했던 것이다. 이 individuality에 대한 강조는 그의 personality 이론의 礎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科學은 個人을 성가신 단순한 偶然(a mere bothersome accident)으로 여긴다. 心理學 또한 개인을 事件들의 劃一性을 설명하는 주된 主體 機能이 이행되기 위해 無視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something to be brushed away)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一般화된 人間精神”이라고 일컬어지는 약간 어두운 人間性 描寫에 열중하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본다. 이러한 人間성 묘사는 어떠한 目的 成就에는 상당히 寄與하지만 人間을 살아 있는 개인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滿足스러운 것이 못된다.<sup>2)</sup>

Allport는 위 著書의 제 일장의 序頭에서 이러한 자신의 立場을 다시 강조하여 “인간의 두드러진 特徵은 그의 個體性이다.”(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man is his individuality.)라고 力說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personality의 本質的 概念 規定에 있어서 普遍性究明의 方法(nomothetic method)에 의존치 않고 個別性究明의 方法(idiographic method)에 의존하여 접근하고 있는 그의 方向設定의 基本이 되는 것이다. Allport는 personality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personality의 一般性이나 普遍性의 원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의 person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特殊性들(particulars)의 究明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立場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도 표명되고 있다.

2) Gordon W. Allport,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1937, p. vii.

個體性은 科學에 의해 연구되지 않고 歷史, 藝術, 혹은 傳記에 의해 연구된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은 普遍性探究의 方法(普遍的 法則을 추구하는)이 아니라 個體性探究의 方法이다.<sup>3)</sup>

극히 一般的인 의미에서 말할 때 人間 個人은 精神的, 肉體的, 社會的 實體(psychosomatic-social entity)로서 그가 지닌 제 속성에 나타나는 일반성과 공통성에 비추어 보편적 동일성에서 그 사람됨(personality)의 본질이 規明되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간성의 탐구에는 事案의 客觀的, 普遍的 探究의 方法인 科學的 方法이 동원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구명되는 것은 個個 事實에서 概括되고 抽象되는 일반적 원리와 그 보편성이다. 그러나 Allport는 personality 탐구에서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배제한다. 그는 인간성(personality)의 본질적 특성을 心-身-社會的 實體로서의 그 共通性, 一般性, 普遍性에서 추구하지 않고 百人 百色, 千差萬別의 人間 個人의 特殊性과 差異性, 즉 個體性에서 탐색하려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개인에 따라 特異한 成長의 過程과 生活의 過程(歷史), 사람에 따라 고유하게 작용하고 표출되는 情緒(藝術), 또는 各人 各樣의 個人 生長史(傳記)가 탐구의 方便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Allport에게 있어서 인간의 personality에 萬人으로부터 개인을 구별시켜 주는 特性이 있다면 그 것이 개체성인 것이다. Allport에 의하면 이러한 개체성은 他人에게서 反復되어 질 수 없는 것이어서 傳統的인 科學的 接近으로서 究明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Allport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宣言한다. “固有하고도 결코 反復될 수 없는 現像인 人間은 모든 過程에서 傳統的인 科學的 접근을 회피한다.”(The person who is a unique and never-repeated phenomenon evades the traditional scientific approach at every step.)<sup>4)</sup>

## 2. 2. “Real Man”으로서의 Personality의 特徵

Allport가 제시하는 personality의 두번째 특징은 人間性的 實體性 概念, 즉 real man의 개념이다. 그는 “심리학은 人爲的인 人間의 研究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實體人(real man)을 描寫하고 說明해야 한다.”<sup>5)</sup> 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personality에 대한 心理學的 研究 대상으로 어떠한 인위적으로 抽象된 人間상을 배제하고, 生物-心理-社會學的 實體(bio-psychic-social entity)로서의 實相人(real man)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real man의 개념은 그의 individuality의 개념과의 必然的 關聯에서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사람됨(personality)이란 각기 固有한 個人(a unique individual)으로 구명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 할 때 이 때 그 사람이란 一般化되었거나 抽象化된 사람(generalized or

3) Allport,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61, p. 9.

4) Allport, *Op. Cit.*, p. 9.

5) Allport, *Pattern*, p. ix.

abstracted man)이 아니라 實體로서 生動하는 個人(an actual individual or real person)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Allport는 personality theory의 연구에 있어서의 社會, 文化的인 接近을 배격한다. Allport는 개인의 사람됨(personality)을 그의 특이한 生物學的, 心理學的 實體性(bio-psychological entity)이나 독특한 生活樣態와 行動方式의 實相에서 구명치 않고 개인을 둘러싼 社會, 文化的 狀況의 力學的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外的 關係性에서 把握하려는 일단의 社會心理學者들과 人類學者들의 입장에 대해 매우 批判的이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社會科學을 輕視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의 저서 *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1960)나 *The Nature of Prejudice*(1954) 등을 통한 寄與에서도 볼 수 있다. Allport는 personality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동안에도 社會와 文化는 계속된다. 社會-文化的 體制的 生存을 위해서 어떠한 特定 個人은 중요치 않다. 그렇지만 심리학자에게 있어 개인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抽象的인 文化概念은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됨의 바른 究明에는 距離가 멀고 그릇된 方向으로 인도한다. 어떠한 개인도 平均的 文化樣態나 形式을 反射하는 映像(image)이 아니다.<sup>6)</sup>

Allport는 사회와 문화란 개인의 personality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이의 설명에 요긴한 것이긴 하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personality의 本質的인 內的 統一性を 害치도록 放任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力說한다.

문화와 社會는 비록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人間性(personality)의 本質인 內的 統一성을 消滅토록 허용해서는 안된다.<sup>7)</sup>

## 2. 3. 研究對象 - 正常人的 正常現像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가 다른 이론들과 구별되는 세째번(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正常人的 正常的인 行動이나 生活 樣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現代心理學에서 가장 影響力 있는 學派 중 하나는 psychoanalysis라고 일컬어지는 心理學 流派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精神分析學은 personality theory를 포함해서 心理學 研究의 모든 課題와 對象을 전적으로 正常人이 아닌 精神患者의 異常行動과 그 原動力으로서의 非 正常的인 無意識 世界的 潛在的 衝動性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그 基本的 特性이다. Allport는,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단호히 배격한다. 그에게 있어서 일반 심리학 특히

6) *Pattern*, p. 166-167.

7) *Ibid.*, p. x.

personality의 탐구에 있어서의 關心 領域은 어디까지나 正常人의 正常的인 行動이다. 이러한 Allport의 입장은 Freud의 接近과는 크게 상충되는 것이다. 물론, 그는 Freud의 寄與(특히 自我防禦機制에 대한)를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非 正常人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personality 理論을 정립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부당하게 여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 雄辯的으로 표명되고 있다.

일부 生成의 理論들(some theories of becoming)은 주로 病들어 있거나 不安스러운 사람들의 行動이나 또는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쥐들의 怪狀한 發作에 입각해 있다. 단지 生을 保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生을 가치있게 하기 위해 진력하는 健康한 人間存在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이론들이란 거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犯罪人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볼 수 있으나 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별로 찾아 볼 수 없고, 卑怯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볼 수 있으나 勇敢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고, 서로 敵對關係에 있는 사람들의 연구는 많이 있으나 協同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앞을 못보는 장님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는가 하면 인간의 過去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볼 수 있으나 먼 未來에 그의 眺望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Allport의 입장은 제 삼자(Sahakian)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確認되고 있다.

Allport는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강조점을 精神醫學者들이 자신들의 人性理論의 많은 자료들의 근원으로 삼은 變質된 非 正常人에게 두지 않고 正常的이고 統合된 사람에게 둔다.<sup>9)</sup>

Personality 理論의 탐색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에 반대되는 Allport의 입장은 정상인이 아닌 비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觀察研究를 personality 理論 定立의 근거로 삼는 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意識界를 도외시하고 無意識界를, 그리고 未來를 배제하고 過去에 의존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 Freud의 approach에 대해서도 표명되고 있다. Allport는 Freud와는 달리 personality에 대한 바른 이해는 비 정상인이 아닌 정상인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의 無意識이 아닌 意識에 대한 연구에서, 그리고 過去가 아닌 未來에 대한 연구에서 비로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llport는 사람의 人性(personality)은 개인의 深層部에 潛在해 있는 id에 의해 支配되는 단순한 로보트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個人의

8) Allport, *Becoming. Basic Consideration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5, p. 18.  
9) William S. Sahakian ed., *Psychology of Personality : Readings in Theory, Theory*, Chicago : Rand McNally and Company, 1965, p. 264-265.

動機(motives)나 特性들(traits)은 “深海潛水術”(the art of deep-sea diving)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無意識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고 諷刺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Allport의 人性理論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아주 包括的인 이론으로 評價되고 있다. 우리는 Allport의 卓越한 理論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대표적인 예를 Hall과 Lindzey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Allport의 學說에 대해 다음과 같이 讚辭를 아끼지 않는다.

.... 그(Allport)는 새롭고 난폭할 정도로 急進的인 着想들의 擁護者(the champion of new and outrageously radical ideas)로 出現했다. 그는 아마도 當代의 다른 어떠한 理論家 보다도 더 잘 傳統的인 心理學 思想과 人性理論을 統合하였다.<sup>10)</sup>

그러면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는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가? 이제 그의 理論의 主要 骨子を 概觀해 보자.

### 3. Personality의 基本概念

#### 3. 1. Personality의 定義

Personality가 무엇인가에 대해 Allport는 1961년에 간행된 자신의 著書에서 이렇게 定義를 내리고 있다.

“Personality란 環境에 대한 個人의 特徵的 行動과 思考를 決定하는 그의 内部에 있는 心理的-物理的(精神의-身體的) 體制의 力動的 組織體이다.”<sup>11)</sup>

이는 Allport가 앞서 1937년에 간행된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내린 personality에 대한 定義 중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부분은 “... his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로서 본래 이는 “Personality is ... that determine his unique adjustments to his environment.”<sup>12)</sup> 로 되어 있었다. 마지막 부분인 “그의 環境에 대한 固有한 適應”(his unique adjustments to his environment)이 “그의 特徵的 行動과 思考”(his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로 바뀐 이 수정은 얼핏 보기엔 별것 없는 것 같지만 그 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은 personality가 지니고 있는 意識的, 積極的 要素에 대한 그의

10) Calvin S. Hall and Gardner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1978, p. 437.  
11) Allport, *Pattern*, p. 28 - “Personality is the dynamic organization within the individual of those psychophysical systems that determine his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  
12) Allport, *Personality*, p. 48.

강한 關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adjustments to the environment”라 할 때 이는 有機體의 周邊事情에 대한 단순한 刺戟-反應의 機械論的過程이라고 하는 색체가 풍기는 표현이므로 이를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로 바꿈으로써 개인의 意識的, 能動的, 積極的 特性을 personality의 基本要素로 보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었다.

### 3. 2. Personality의 個體性

이 정의에는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의 다른 學者들의 理論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인 個體性에 대한 強調가 함축되어 있다. 그것은 “個人”(the individual)과 “그의 特徵의 行動과 思考”(his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個體性(individuality)의 概念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의 바탕이 되는 것인 바, 이는 Hall과 Lindzey의 personality 理論에 대한 體系的, 包括的 연구에서 Allport의 이론에 대한 항목에 “Allport’s Psychology of Individual”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지고 있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13)</sup> Allport는 personality에 대한 고찰에서 이의 一般化(generalization)나 分枝化(segmentation)에 반대했다. 그는 각 사람은 固有하고 獨特한 個人(a unique person)으로서 그 personality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普遍性的 측면이 아닌 特有한(characteristic) 個體性的 측면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았다.

### 3. 3. Personality의 力動性

Allport의 personality에 대한 정의에 함축된 두번째 관심은 personality의 力動性에 대한 강조에 표명되어져 있다. 이는 “力動的 組織體”(dynamic organization)와 “決定하는 바”(determine)의 두 표현에서 볼 수 있다. Allport에 의하면 인간은 로보트가 아니라 固有한 成長潛在力을 가진 生命體(a living being with unique potential for growth)이다. Allport는 成人에게는 兒童期의 影響이 移越되어 殘存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personality 形成에 있어서의 過去의 作用을 認定하면서도, 그러나 사람의 personality를 결정하는 으뜸가는 영향은 現在의 作用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現在의 作用과 아울러 未來에의 意識的 志向性을 개인의 personality를 결정하는 本質的 要因으로 본다. Personality 決定要因으로서의 無意識을 전적으로 중시하는 精神分析學的 立場에 반대하여 Allport는 인간의 未來志向의인 意識의 作用이야 말로 그의 고유한 personality의 本質的 要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Allport는 Freud의 인간의 동기의 핵심으로서의 受動的 防禦性을 거부하고 그 대신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作爲性(coping)을 개인의 核心的 動機로 본다. Allport의 personality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의 “dynamic organization”과 “determine”이라고

13) Hall and Lindzey, *Theories*, P. 437.

하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의 personality theory의 論議의 脈絡에 비추어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3. 4. 動機의 概念 - 機能的 自律性

Allport의 동기의 개념은 그가 “機能的 自律性”(functional autonomy)이라고 일컫는 特有의 概念과 連繫된다. Hall과 Lindzey는 이 “functional autonomy”의 개념을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 전체에 있어서의 中心 要素로 보고 있다.<sup>14)</sup> 그런데 機能的 自律性이란 말로 요약하면 人間의 行動의 本來는 意圖(intent)나 根源(origin)과 관계 없이 行動 그 자체로 말미암아 作動하고 持續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행동은 力動的인 것이어서 스스로(自律的으로) 그것을 일으키고 지탱해 가는 그러한 것이라 한다.

機能的 自律性的의 이러한 原理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개념은 動機란 現在的이고, 成人의 動機는 嬰아기(infancy)의 동기를 代身하고 機能的 自律性은 成熟의 尺度( ... the concepts that motives are contemporary, that adult motive supplant motives of infancy, and that functional autonomy is a measure of maturity ... )<sup>15)</sup> 가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 자율성과의 관련에서 파악되는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모든 동기는 行動이 發生하는 바로 時點, 그 場所, 그 狀況(contemporary)에 따라 作用하는 行動 그 自體이고, 成人期의 行動을 일으키는 요인은 幼少時의 經驗에 의해 영향 받기도 하지만(過去), 그러나 成人期에 작용하는 當場(contemporary, immediate)의 影響力이 幼少時의 그것을 壓倒하여 代身하며(現在),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기능적 자율성이란 개인의 現在 行動의 動機와 이에 의해 發生하여 持續하는 행동의 樣相을 決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行動樣相에 의해 평가되는 그의 成熟度를 나타내는 尺度가 되는 것이라 한다.

### 3. 5. Personality의 有機的 統一性 - Proprium과 Traits

Allport의 personality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면은 人間存在의 有機的(組織體로서의) 統一性(organic unity) 개념에 관해서이다. 그는 이 인간성의 有機的 統一性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그의 관심은 “組織體”(organization)와 “心理的-物理的(精神的-身體的) 體制”(psychophysical systems)라고 하는 용어들에 함축되어 표명되고 있다. 여기 심리적-물리적(정신적-신체적=psychophysical)이란 인간이 性情(temperament), 知性(intelligence) 등의 精神-心理的 要素와 함께 身體-體格(body-physique)을 原料(raw materials)로 해서 구성된 精神的(心理的=mental), 物理的(身體的=physical) 統一體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인간은 精神-物

14) Hall and Lindzey, *Ibid.*, p. 449.

15) *Ibid.*

理(心理-身體)的 實體(psychophysical entity)로서 이들 精神的 物理的 諸 要素들은 別 個의 것으로 각기 孤立的으로 存在하고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하나의 有機的 統一體를 이루어 서로 均衡과 秩序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系列에 따라 合目的的인 組織 (organization)을 갖춘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體制(system)로 存在하고 作用하는 統一의 實體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llport는 또 하나의 고유한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것은 *proprium*이다. 그는 이를 “內的 統一을 이루게 하는 personality의 모든 局面들”(all aspects of personality making for inward unity)<sup>16)</sup> 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 *proprium*은 心理學이 傳統적으로 “self,” “ego” 및 “style of life”라는 用語들에 포함시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7)</sup> Allport는 내적 통일성을 가능케 하는 personality의 전 국면인 *proprium*에는 身體的 感覺(bodily sense), 自我正體性(self-identity), 自我向上性 (self-enhancement), 自我擴大性(self-extension), 合理的動因(rational agent), 自我想像力 (self-image) 및 統一性 追求力(propriate striving)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sup>18)</sup> 이 모든 요소들이 personality의 統一性을 가능케 하는 개인 안에 있는 機能들인 것이다. 그런데, Allport에 의하면, 이러한 personality의 統一性 實現 機能은 幼少時, 두, 세살 무렵에 작용하기 시작하며 이와 함께 사람의 personality는 發達이 개시된다고 한다. 이 發達은 personality의 基本的 特性들(traits)의 構造化의 형태로 나타난다.

Personality의 特性들이란 개인의 行動(conduct)을 特徵짓는 根源이다. 그런데 이 특성의 개념은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상표로서 그의 이론이 “人性에 대한 特性的 接近”(A Trait Approach to Personality)<sup>19)</sup> 라고도 불리워지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Allport가 말하는 personality 구조의 특성(trait)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共通 特性”(common traits)과 “個的 特性”(individual traits)이다. 前者는 여러 사람들에게 共通된 經驗(common experience)에서 발달한 것이요, 後者는 個人에게 特有한 것으로서 그 개인에게만 適用될 수 있는 것이다. Allport는 후에 쓴 著書에서 이 “individual traits”를 “personal disposition”(人性的 性向)이란 말로 바꾸었는데 이는 이 특성들이 personality가 그 틀에 맞추어져서 형성되는 外的 범주가 아니라 personality의 構造 自體를 반영하는 本體라는 것을 명백히 구별하기 위해서(to distinguish clearly their status as reflecting personality structure rather than as categories into which personality is placed)<sup>20)</sup> 이다. 다시 말하면 individual traits라는 표현은 그것이 개인의 外部에서 그의 personality 形成에 작용한다고 하는, 그리하여 personality는 이 外的 要因의 影響에 의해 受動的으로, 機械的

16) Allport, *Becoming: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p. 40.  
 17) James P. Chaplin and T. S. Krawiec, *Systems and Theori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8, p. 582.  
 18) Allport, *Becoming*, p. 41.  
 19) Sahakian, *Psychology*, p. 264.  
 20) Allport, *Pattern*, p. 359.

으로 形成되어 진다고 하는 사실을 暗暗裡에 示唆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이를 personal disposition이라는 말로 바꾸으로써 그것이 personality의 構造的 實體라는 것과 personality는 이의 고유한(characteristic) 특성의 自體發現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Allport는 individual traits 또는 personality disposition으로 표현되는 personality의 구조에 몇 가지 요소들을 부가해서 그 의미를 보완하는 바 그는 이를 personality의 “中心特徵”(central feature)이라고 부른다. 이 中心特性으로 그는 personality의 個體性(individuality), 未來志向의 生活推進力(the future pointed thrust of his living) 및 그 核心特質들의 組織的 交叉性(the systematic interlacing of his key qualities)을 제시하고 있다.<sup>21)</sup>

Allport에 있어서는 개인의 personality 개념은 개인의 存在 自體나 personality의 形成, 決定, 發達의 제 국면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그 個人 自體의 固有한 特殊性을 바탕으로 해서 정립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는 社會的 刺戟價值接近(social stimulus-value approach - 개인은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이나 反應接近(response approach - 개인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즉, Allport는 personality를 個人의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對人關係에서 그가 他人에게 어떠한 價値의 刺戟을 주고, 또 이에 대해 他人으로부터 어떠한 價値의 反應을 얻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그리하여 personality를 순전히 개인의 社會的 關係나 外部 環境與件과의 작용에 의해 규정되는 外的 產物로 보는 社會心理學的인 接近에 反對한다. 그리하여 Allport는 사람의 personality를 전적으로 個人의 實體性(what a man really is)<sup>22)</sup> 에서, 그리고 그의 內的 特質의 一貫性(internal consistency)에서 규명하려는 그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本質主義者(an essentialist)라고 부르고 있다.<sup>23)</sup>

#### 4. Personality의 成熟

##### 4. 1. 成熟의 概念

Personality는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든지 간에 生物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實體로서의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概念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personality의 本質的 屬性은 그것이 不斷히 發達하여 成熟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 成熟(maturity)에 대한 논의는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서 絶頂을 이루고 있다.

그의 성숙에 대한 本格的인 論議에 앞서 몇가지 留意하고 지나가려 한다.

첫째로, Allport는 成熟과 관련된 논의에서 “健全함”(soundness)과 “健康함”(health)을

21) Ibid., p. 359.  
 22) Ibid. p. 48.  
 23) Ibid.

“成熟”(maturity)과 交互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 soundness와 health는 personality 개념에 있어서 精神-物理的(心理-身體的=psychophysical)次元을 가리킨다. 즉, 이들은 精神의인 健全함(mental soundness)과 身體的인 健康함(physical health)을 나타내는 말이다.

둘째로, Allport는 成熟과 관련된 personality의 탐구에 있어서의 心理學的方法에 대해 암암리에 不信을 표명한다. 가령, Allport는 “우리는 科學 만으로는 무엇이 健全하고, 健康하고 善한지 알 수 없다”(science alone can never tell us what is sound, healthy, or good.)<sup>24)</sup> 라는 말로 心理學的 基準이나 方法이 精神-物理-社會學的 實體(psycho-physico-social entity)를 갖춘 有機的 統一體인 人間에 대한 成熟의 究明에 限界가 있음을 斷言했던 것이다. 이러한 Allport의 인식에 대해 Hall과 Lindzey는 “인간 행동의 神祕를 푸는 일에 대한 心理學的方法과 理論의 窮極的인 힘에 관한 Allport의 根本的인 悲觀主義”(an underlying pessimism on Allport's part concerning the ultimate power of psychological method and theory to unravel the mystery of human behavior)<sup>25)</sup> 라고 평하고 있다.

셋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Allport의 maturity에 대한 概念規定이다. 그는 “人性的 成熟은 曆年齡(生物學的 年齡)과는 어떠한 必然的 關係를 갖지 않는다.”(... maturity of personality does not have any necessary relation to chronological age.)<sup>26)</sup> 라고 말함으로써 개인의 사 람됨의 成熟이 반드시 그의 生物學的 年齡(역연령)과 正比例하거나 決定的으로 關係하는 것이 아님을 力說하고 있다. Allport에 의하면 개인의 生長 年齡(chronological age)은 每 段階마다 거기에 당연히 기대되는 一定한 成熟의 基準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個人的 成熟의 전 국면을 이해시켜 주는 데 있어서의 本質的인 決定要因은 되지 못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成熟의 基準은 生長연령의 다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 Allport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사실을 밝힌다. “잘 均衡되고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賢明한 열한살의 少年(少女)은 自己中心的이고 神經症에 걸린 많은 成人들 보다도 더 많은 成熟의 標를 가질 수 있다.”(A well-balanced lad of eleven, ‘wise beyond his age’, may have more signs of maturity than many self-centered and neurotic adults.)<sup>27)</sup>

Allport는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간결한 표현으로 定義치 않는다. 그는 “健全한 personality란 自身の 環境을 積極적으로 支配하고, 一定한 統一性을 나타내 보이며, 世界와 自身에 대해 正確하게 認識할 수 있는 能力을 具備한 人間性”(a healthy personality is one that actively masters his environment, shows a certain unity of personality, and able to perceive the world and himself correctly)이라고 한 Marie Jahoda의 견해를 personality의 成熟基準의 개념을 규정한 適切한 定義로 여기고 있다.<sup>28)</sup>

24) Ibid., p. 276.

25) Hall and Lindzey, *Theories*, p. 260.

26) Allport, *Pattern*, p. 277.

27) Ibid.

28) Ibid.

## 4. 2. 成熟의 基準

Allport는 成熟 그 자체에 대한 상세한 概念規定을 피하고 그 대신 personality가 實現해야 할 成熟의 基本的인 基準으로

- 1) 多様な 自律的 興味(a variety of autonomous interests)
- 2) 自我 客觀化(self-objectification)
- 3) 統一된 生의 哲學(a unifying philosophy of life)<sup>29)</sup>

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후에 그는 이를 수정, 보완, 확충하여 다음 여섯 가지를 列舉하였다.

- 1) 自我意識의 擴大(extension of the sense of self)
- 2) 他人에 대한 自我의 따뜻한 關係의 維持(warm relating of self to others)
- 3) 情緒的 安定(自我受容)(emotional security)(self-acceptance)
- 4) 現實的 認知能力, 才幹과 課業(realistic perception, skills and assignments)
- 5) 自我 客觀化(self-objectification)
- 6) 統一된 生의 哲學(the unifying philosophy of life)<sup>30)</sup>

Allport는 성숙의 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同意語들을 사용하고 있다. 1937년에 처음 성숙의 기준의 항목들을 제시함에 있어 그는 (個人的 人性을 他人의 그것과) “區別케 하는 特徵들”(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Personality의 構造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그는 *Becoming*에서 personality의 고유한 特徵들을 가리키는 말로 “特徵”(characteristic)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곳에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特性”(traits)이나 “人性的 性向”(personal dispositions)에 해당되는 말이다. Allport는 이 인성의 성향에 人性的 “行動傾向性”(action tendencies)을 연계시키고 있는 데 이는 성숙의 특징이 그 자체에 있어 動機的(motivational)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成熟의 特質들을 나타냄에 있어서도 그는 “屬性들”(attributes), “特色들”(features) 및 “力量”(capacity)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事實에 留意하면서 이제 그가 제시한 成熟의 여섯가지 基準들에 대해 考察해 보자.

1) 自我意識의 擴大(extension of the sense of self) : Allport는 여기 “自我”(self or ego)概念과 관련하여 人間 自我에는 “深刻한 哲學的 dilemma”가 連繫되어 있음을 본다. 그것은 이 자아가 인간의 魂(soul)과 人間 本性에 대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dilemma로서 이는 개인의 다양한 外的 價値에의 志向性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 自我意識의 擴大란 人間 存在의 核心인 이 自我의 그 魂에 대한 관계에서의 自覺心의 擴大로서 이러한 自我意識의 擴大는 개인으로 하여금 現實 世界에서의 自我志向의 生에서 脫皮케 하는 힘이 된다. 따라서 성숙의 기준으로서의 “自我意識의 擴大”란 自身の 物理的

29) Allport, *Personality*, p. 213-214.

30) Allport, *Pattern*, p. 307.

存在나 物質的 所有에 대해서 보다는 人間 本性的 魂이 요구하는 內的 價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能力的 伸長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自我中心主義(ego-centricity)와는 正 反對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일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自己 利益의 損失도 甘受하는 그러한 德目을 말한다. 이러한 德은, 그렇다 해서, 개인의 社會的 關係에서 閉鎖的 孤立志向性을 容納하지 않고 그에게 開放的이며 外部志向的인 生을 요구한다.

2) 他人에 대한 自我의 따뜻한 關係의 維持(warm relating of self to others) : “自我意識의 擴大”는 무엇 보다는 우선 다른 사람과의 社會的 關係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자아의식의 확대에서 나타나는 他人과의 關係는 무엇 보다는 “사랑”의 관계이다. 즉, 타인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人間關係에서 개인이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그의 사람됨의 成熟을 판 가름하는 두번째 基準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준은 개인의 社會的 關係에 있어서 다른 사람(person)을 사람(person)으로 尊重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德목과 아울러 Allport는 이 成熟 基準을 充足한 個人으로 “... 다른 사람들에게 負擔이 되거나 弊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自由를 侵害치 않는 者”(... one not be burden or nuisance to others, nor impedes their freedom ....)를 들고 있다.<sup>31)</sup>

성숙의 기준으로서의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사랑의 德목과 관련하여 Allport는 개인의 他人(異性)과의 性的 關係에서의 사랑의 能力的 成熟도 그의 사람됨의 성숙의 한 국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性的 衝動性(sex drive)을 personality의 발달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는 Freud류의 精神分析學者들과는 달리 Allport는 이러한 성적 사랑의 능력이란 적절히 다루어질 때에는 개인의 성숙에 기여하는 한 요인이 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成熟의 全體로 여겨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sup>32)</sup>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타인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따뜻한 관계의 유지라고 하는 성숙의 두번째 기준에 있어 關鍵이 되는 德목은 忍耐(tolerance)이다. 이 忍耐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거침 없이 受容하게 한다. 그리하여 對人關係에 있어서 忍耐력이 缺如되어 相對人을 受容함에 주저하는 사람은 그와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者요, 이러한 사람은 穩全히 成熟한 personality의 所有者라 할 수 없다.

3) 情緒的 安定(自我受容)(emotional security)(self-acceptance) : 이 기준은 앞의 기준 2)와 함께 기준 1)에서 擴廷된 것이다. 기준 1)이나 기준 2) 단계의 성숙을 이룩한 自我(個人)의 뚜렷한 徵標 중의 하나는 自我體制의 德목이고, 성숙의 제 3의 기준인 情緒的 安定(自我受容)에 있어서의 關鍵이 되는 德목은 “要求沮止 忍耐性”(frustration tolerance)이다. 이러한 德목을 갖춘 개인은 자신을 失手를 免할 수 없는 存在로, 있는 그대로 기꺼히 알고 수용한다. 그는 가령 앞에서 언급한 性的 衝動性(sex drive)도 그

31) Allport, *Pattern*, p. 285.

32) Ibid.

것을 음란한 것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정숙한 체 하여 억제하거나 하지 않고 인간의 生의 嚴然한 現實로 받아 들인다. 그렇다 해서 이러한 성숙의 기준은 개인으로 하여금 높은 理想主義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非 現實的인 것이 아니다. Allport는 이러한 비 현실적인 이상주의를 배격한다. 다음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다.

成熟한 사람이라 해서 언제나 沈着하고 溫和하며 恒常 明朗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氣分은 늘 변화하여 자신을 悲觀하기도 하고 憂鬱해지기도 하며 번덕을 부린다. 그러나 그는 衝動的 行動을 恣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福利를 侵害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情緒的 狀態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터득한 자이다.<sup>33)</sup>

4) 現實的 認知能力, 才幹과 課業(realistic perception, skills and assignments) : 이 기준에는 사람들과 周邊事情에 대한 現實的인 態度가 連累된다. 이 단계의 성숙을 이룩한 개인은 現實世界를 直視하여 있는 그대로 認識하고 여기에 處한 자신의 實相과 그에게 賦課된 責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에 부응하도록 適切하게 無理없게 行動하며 處身한다.

5) 自我客觀化(self-objectification) : 이 단계에 도달한 개인은 自身의 可能性과 限界性을 自覺하고 現實的 自我像(real self-image)과 理想的 自我像(ideal self-image)의 間격을 있는 그대로 認定하고 이에 따라 自身의 力量을 評價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언제나 正確한 自我評價(self-evaluation)의 力量, 즉 洞察力이 작용한다. 이러한 自我客觀化의 段階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洞察力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유머 感覺(a sense of humor)이 發達, 作用하는데 이 유머 감각은 개인의 성숙의 기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는 결코 輕薄하고 猥褻스러운 逸樂이 아니라 자신의 調和롭지 못한 人間自我의 限界性에 대한 宜當하고 의정한 反應인 것이다.

6) 統一된 生의 哲學(unifying philosophy of life) : Allport의 말을 빌리면 이 기준은 “... 生의 주된 行動이 거기에 부합하는 意味와 責任의 틀”(... a frame of meaning and responsibility into which life's major activities fit)<sup>34)</sup> 을 의미한다.

이 기준의 核心要因은 合 目的性(purposefulness)으로서 이는 개인의 價値志向性으로 表出된다. Allport는 獨逸 心理學者 Spranger가 규정한 여섯 가지의 가치지향성을 成熟한 personality가 到達할 基準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1) 理論的 2) 經濟的 3) 美的 4) 社會的 5) 政治的 6) 宗教的 價値志向性이다. 이들 여섯 가지의 가치지향성 중 Allport가 성숙한 개인의 가치지향성으로 가장 包括的이고 높은 次元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宗教的 價値志向性이다. 그리고 이들 여섯 가지의 價値志向性이 실현해야 할 德목은 각각 1) 理論的 價値志向性-眞理 2) 經濟的 價値志向性-實用性(usefulness) 3) 美的

33) Ibid., p. 288.

34) Allport, *Personality and Social Encoimnter*, Boston : Beacon Press, 1960, p. 162.



價値志向性—調和 4) 社會的 價値志向性—人間愛(love of people) 5) 政治的 價値志向性—힘(power) 6) 宗教的 價値志向性—統一性(unity) 이다. 이들 가치지향성에 부응하는 德目들은 成熟한 人間性(personality)에 있어서 各己 獨立된 것이 아닌 統合된 德目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 personality가 성숙해서 도달할 가장 包括的이고 높은 단계는 宗教的 段階이다. 이에 관련된 Allport의 다음 말은 흥미해 볼 만 하다.

... 참다운 宗教的 人格體(personality)는 有限한 現在를 包括的인 世界觀에 연합시켜 이 現在를 意味있게 하고 自身에게 受容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sup>35)</sup>

## 5. Allport의 理論에 있어서의 宗教的 次元

### 5. 1. 人格成熟의 最高次元으로서의 宗教性

Allport의 人性理論에 있어서의 宗教的 問題는 어디까지나 그의 성숙의 개념과의 관련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개인의 人性(personality)이 成熟하여 到達할 最高의 단계가 宗教的 次元이라고 본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宗教的 人生觀을 成就할 수 있는 者는 成熟되고 잘 統合된 人格을 形成하여 維持할 수 있다.”(... those who achieve a religious view of life are able to build and maintain mature and well-integrated edifice of personality)<sup>36)</sup> 라는 그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宗教를 “生의 中心部에서 솟구쳐 나오는 바 個人을 永遠者에게로 志向케 하는 그의 人格의 部分”(that part of the personality that arises at the center of the life and is directed toward the infinite)<sup>37)</sup> 이며 “가장 遠大한 意志를 지닌, 그리하여 그의 人格에 뚜렷한 統合을 부여해 줄 수 있는 精神生活의 領域”(the region of mental life that has the longest-range of intention, and for this reason is capable of conferring marked integration upon personality)<sup>38)</sup> 이라고 규정한다. Allport에 의하면 개인의 道德的 理想과 良心과 宗教的 信仰은 成熟한 그의 personality의 內的 構造가 갖추어야 할 참된 國면들로서 “宗教에는 人格의 穩全함을 助長해야 할 義務(a duty to foster wholeness of personality)가 있고 宗教가 이 義務를 履行치 않을 때에는 마땅히 批判받아야 한다.”<sup>39)</sup> 고 한다.

35) Allport, *Personality*, p. 226.

36) Allport,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0. p. vi.

37) Ibid., p. vii.

38) Ibid., p. 142.

39) Allport, *The Person in Psychology*, Boston: Beacon Press, 1968, p. 404-405.

### 5. 2. Allport의 理論에 있어서의 宗教的 本質的 性格

그러면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종교는 어떠한 性格의 것인가? 그것은 特定 宗教(基督敎)의 敎理를 核心基盤으로 하는 生命力 있는 宗教인가? Allport가 말하는 종교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心理學者로서 자신의 理論體系를 構成하는 한 要素로서, 다시 말하면 personality의 發達이 成就해야 할 成熟의 한(가장 높은 차원의) 段階로서의 宗教의 次元을 想定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비록 자신의 人性理論에서 宗教의 位相을 작지 않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神學的 立場에서의 考慮는 避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도 明示되고 있다.

나의 努力은 必要할 때, 必要한 局面에서 人格의 構造에 그러한(主觀的) 宗教가 자리를 갖게 될 경우 主觀的 宗教의 위치를 描寫하려는 일에 志向되고 있을 따름이다. 나의 接近은 心理學的인 것인 바 或者는 이를 自然主義的이라 부를 것이다. 나는 啓示宗教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를 假定도 否認도 하지 않는다. 科學者로서의 著述에 있어서 나는 啓示宗教의 주장에 대해 가정도 부인도 할 資格이 없다.<sup>40)</sup>

위의 말에는 Allport의 宗教에 대한 生覺이 잘 표명되어 있다. 그는 하나의 心理學者로서 宗教를 歷史的, 客觀的 現實로 보지 않고 다만 개인의 人間性的 발달이 도달하는 成熟의 한 次元으로서 어디까지나 個人의 主觀的, 즉, 心理的 現象으로 보고 이러한 心理現象이 personality의 성숙에서 차지하는 意味와 役割이 어떠한 것인가를 묘사하는 일에 關心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는 自然主義者로서, 科學者로서, 宗教에 對해 心理學的으로 接近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는 啓示宗教의 神學的 問題에 대해서는 中立的인 立場에서 이를 認定도 否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立場에 비추어 그가 앞서 成熟의 最高段階로 想定한 6) 統一된 生의 哲學(unifying philosophy of life)에 대한 論議에서 Spranger가 말하는 개인의 價値志向性的의 가장 높은 次元인 宗教的 價値志向性이 實現해야 할 價値로서의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탐구에서 제시하는 聖(holiness)의 개념이나 다른 어떠한 超自然的 價値를 排除하고 단지 統一性(unity)이라고 하는 現實的, 經驗的 次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論理의 當然한 歸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宗教的 問題는 이러한 水準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llport의 宗教觀은 종교를 인간의 허황된 妄想이나 그 어떠한 迷信的인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留意해야 한다. 그는 心理的 現象으로서의

40) Allport, *The Individual*, p. vii - “My effort, as I say, is directed solely to a portrayal of the place of subjective religion in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whenever and wherever religion has such a place. My approach is psychological, some would call it naturalistic. I make no assumptions and no denials regarding the claims of revealed religion. Writing as a scientist I am not entitled to do either.”

인간의 宗教的 感情(religious sentiment)을 “信仰의 實際”(practice of faith)요, “어떠한 非凡스러운 現實”(something extraordinarily real)로서의 神祕로운 認和力에 의해 定立되는 信仰의 證據(the verifying of a faith by mystical perception)로 보며 이는 感覺的 認知力(sensory perception)에 의해 正立되는 증거 못지 않게 自身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世界에 대한 그의 信念(beliefs)을 正當化해 준다고 믿고 있다.<sup>41)</sup> 그리하여 그는 宗教를 妄想으로 보는 Freud의 그것은 물론 宗教를 阿片이나 性的 衝動의 昇華나 恐怖의 產物로 보는 여러 反宗教的 立場을 斷乎히 排擊한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프로이드는 自然主義라고 하는 머나먼 道路에 進入하기에 앞서 웅덩이에 앉아 글을 쓰는 著作者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宗教를 “偉大한 妄想”(great illus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宗教를 “사람들의 阿片”(the opiate of the people)이나 “性的 昇華”(a sublimation of sex)나 “恐怖의 表現”(an expression of fear)이라고 하는 것과 事實상 같은 말이다. 이러한 생각은 열매들(fruits)을 고려함이 없이 선택된 몇몇 뿌리들(certain selected roots)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때로는 宗教的 意識으로 轉移되는 內容을 宗教의 本質인 意志(intent)와 混同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릇된 것이다.<sup>42)</sup>

Allport에 있어서는 成熟한 宗教性(正確하게는 成熟한 人間의 宗教的 感情)은 개인의 人格이 도달해야 할 成熟의 最高次元의 心理狀態로서 이에 대한 고찰은 그의 人格-인격(personality)에 대한 견해를 理解함에 不可缺의 局面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心理學的 立場에서 볼지라도 우리는 世俗的 關心에 의해 다루어진 探究의 成果(ground)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成熟한 宗教的 感情을 特徵짓는 範疇에는 못 미치며(falls short of range that characterizes a mature religious sentiment) 이는 모든 存在들에게 核心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한 결코 滿足할 수 없다. 世俗的 關心에 의해 탐구된 어떠한 성과는 印象的(absorbing)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성숙한 개인의 生의 全地平(the whole of a mature individual's horizon)을 包括하는 일이란 거의 없다. 世俗的 探究의 성과에 의해 달성치 못한 부분은 宗教的 探究만이 성취할 수 있다.<sup>43)</sup>

그러면 성숙된 인격이 실현해야 할 成熟한 宗教的 感情은 어떠한 것인가? Allport가

41) Ibid., p. 139.

42) Allport, *The Roots of Religion*, Cincinnati: Forward Movement Publications, 1944, p. 20-21.

43) Allport, *The Individual*, p. 69.

제시하는 성숙한 宗教적 感情이 어떠한 것인가를 고찰하기에 앞서 논의할 것은 이의 基本的 特徵에 관해서 이다.

### 5. 3. 成熟한 宗教性(宗教的 感情)의 特徵

成熟한 宗教的 感情의 첫번째 特徵은 그 固有性(uniqueness)이다. 이에 대해 Allport는 “人格이란 각기 固有하기 때문에 사람各自的 生에 있어서의 宗教的 感情은 반드시 固有한 形式을 취한다.”<sup>44)</sup> 라고 말하고 있다. Allport는 앞서 personality의 基本的 特性으로 제시했던 固有성을 개인의 宗教적 感情의 발달에 있어서도 그 으뜸가는 특성으로 본다. 그는 각 개인은 人格의 宗教的 次元에 있어서의 발달에 있어서도 각기 特異하게 성숙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人格의 宗教的 局面에서 볼 때 사람들의 宗教的 感情은 아마도 가장 多樣스럽게 發達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結論인즉, 各 個人의 主觀的 宗教的 態度는 그의 本質的, 非本質的 局面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사람의 그것과도 같지 않다. 個人의 生에 있어서의 宗教의 뿌리는 아주 多數이고 개인의 生에 미치는 그들(宗教적 뿌리)의 影響은 꽤 多樣하며, 이에 대한 合理的인 解釋에도 끝이 없기 때문에 宗教的 成熟의 結果에 있어서의 劃一性이란 있을 수 없다.<sup>45)</sup>

Allport는 인간의 宗教性(宗教的 感情)에 대한 고찰에서 어떠한 神學的 概念, 例컨데, “靈魂”(soul)과 같은 개념을 想定하는 것을 피한다. 그는 개인의 宗教적 屬性인 “靈魂,” 즉 어떠한 “超越的 自我”(transcendental ego)란 결국 人格의 全 構造와 連鎖되어 있는 人格(personality)의 統一性 維持機能(propriate functions)을 성취시키는 核心的 要素인 한편<sup>46)</sup>, 逆으로 이러한 personality의 統合的 構造(unifying structure of personality)는 인간의 宗教的 屬性(宗教的 感情)과 決定的 關係(a vital relationship to the religious sentiment)를 갖는 것이며, 그리하여 人格의 統合志向性(propriate striving)에는 宗教的 形式(a religious form)이 內在하여 作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Allport에 의하면 이러한 宗教성(宗教적 感情)의 성숙은 personality 성숙기준의 最高次元인 統一된 生의 哲學(unifying philosophy of life)과 가장 密接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미 앞서(成熟의 基準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統一된 生의 철학”은 成熟한 personality가 도달해야 할 가장 包括的이고 統合된 段階의 德目임이 사실이다. Allport는 이러한 成熟된 人格의 特質(unifying philosophy of life)의 概念을 個人의 宗教的 成熟의

44) Allport, *The Person*, p. 148.

45) Allport, *The Individual*, p. 12.

46) Allport, *Pattern*, p. 138.

개념에 적용하여 고찰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宗教的 成熟의 基準은 人格의 成熟의 基準을 宗教的 局面(religious sphere)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sup>47)</sup> 라고 喝破한다. 그런데 宗教的 成熟은 成熟 一般에 있어서 그러하듯 生物學的 年齡(曆年齡=chronological age)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성숙은 外部環境의 影響力(壓力)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Allport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20세, 30세, 심지어 70세된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成人의 人格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事實, 曆年齡은 精神的, 情緒的 成熟을 測定함에는 비교적 貧弱한 尺度이며 마찬가지로 宗教的 成熟을 測定함에도 그러하다. 兒童期를 벗어나면서 個人은 오로지 外部壓力 下에서만 그의 思考와 情緒에 있어서의 自我中心主義(ego-centricism)에서 탈피한다. 그러나 보통 環境外의 壓力은 그것이 다른 形態의 成熟에 대해 必然的으로 그러하듯 宗教的 成熟을 強要치 않는다.<sup>48)</sup>

#### 5. 4. 宗教的 成熟의 基準과 性格

Allport는 personality의 성숙 일반에 대한 논의에서 처럼 宗教的 成熟(成熟한 宗教的 感情)에 대한 고찰에서도 여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批判的 分別力(well differentiated)
- 2) 力動的 性格(dynamic character)
- 3) 一貫性 있는 道德性의 生産性(productive of a consistent morality)
- 4) 包括性(comprehensive)
- 5) 統合性(integral)
- 6) 徹底한 探索性(fundamentally heuristic)<sup>49)</sup>

위의 基準은 成熟한 人格(特性) 一般의 基準을 適用한 것이어서 그 性格上 成熟한 人格(特性, 德目)의 기준과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이 理解에 도움이 된다. 成熟된 人格의 기준과 관련지어 宗教的 成熟의 기준 하나 하나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 한 가지 指摘하고자 할 興味로운 것은 그가 人格 成熟 一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概念規定(定義)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와는 對照的으로 人格에 있어서의 宗教的 次元의 成熟이라고 하는 脈絡에서는 概念規定을 試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llport는 宗教的 成熟을

.... 個人이 自身の 生에 있어서 窮極的으로 重要한 것으로 여기고 事物들의 本質에 恒久的이며 核心的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概念的 對象들과 原理들에 대해 肯

47) Allport, *The Individual*, p. 57.

48) Ibid., p. 52.

49) Ibid., p. 57.

定的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習慣적으로 反應하는, 經驗을 통해 形成된, 性向<sup>50)</sup>

이라고 하는 말로 定義하고 있다. 이 정의에 대해 다소라도 洞察이 가능한 論者라면 이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에 대해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Allport 류의 종교觀의 입장에서 보면 人間의 宗教性은 窮極的인 實在인 靈의 世界와 超越的 絶對者인 神(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生에 있어서 窮極的으로 重要한 것으로 여기고 事物들의 本質에 恒久的이며 核心的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概念的 對象들과 原理들에 대해 肯定的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習慣的으로 反應하는, 經驗을 통해 形成된 性向”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神의 存在 대신에 生에 窮極的으로 重要한 것으로 여기는 事物들의 本質에 恒久的이고 核心的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概念的 對象들과 原理들”이 人間의 종교행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성숙된 人間의 종교성은 그의 종교 高유의 信仰心이나 信仰의 行爲가 아니라 “概念的 對象들과 原理들”에 대한 “肯定的으로, 어느 정도 習慣的으로 反應하는 그의 性向”에 불과하며 그것도 다름 아닌 日常的인 “經驗”을 통해 形成된 性向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Allport가 제시하는 宗教的 成熟의 基準에 대해 考察해 보자.

1) 批判的 分別力(well differentiated) : 이는 개인의 종교적 感情이 批判的 評價力을 갖추었는지 與否에 관한 基準이다. 이러한 評價의 力量은 단순한 것을 넘어 積極的인 省察이 작용하는 問題提起 次元의 것이어야 한다. Allport의 다음의 말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단지 批判的 傾向의 作用이 分別的 感情의 試金石인가? 部分的으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兒童期의 단순한 信念의 원 단계가 省察的인 檢證과 問題提起로 昇華되지 않는 한 感情은 결코 分別力을 發揮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分別力에는 批判力 以上の 것이 內包되어 있고, 部分들을 分揀하고 거기에 秩序를 賦與할 수 있는 力量이 內包되어 있다. 종교적 感情의 作用에는 많은 對象들과 克服해야 할 많은 認知的 極들이 있다.<sup>51)</sup>

이러한 感情의 차원은 制度나 父母에 의해 形成된 觀念들에 지나치게 單純하게 그리고 思慮없이 順應하고 同化하는 傾向에서 벗어나 그 觀念들을 철저하게 檢證하고 (reflective examination) 거기에 問題를 提起하며 그것들을 再 組織하는 傾向으로 情緒

50) Ibid., p. 56 - “... a disposition, built up through experience, to respond favorably, and in certain habitual ways, to conceptual objects and principles that the individual regards as of ultimate importance in his own life, and as having to do with what he regards as permanent or central in nature of things.”

51) Ibid., p. 60.

의 批判力量이 昇華되는 그러한 次元을 말한다. 이리하여 도달하는 宗教的 情緒의 次元은 直接信仰(first-hand faith), 즉 間接的, 依存的인 것이 아닌 獨自的, 主體的 信仰의 次元인 것이다. 이러한 宗教的 成熟의 次元은 앞서 제시한 성숙한 人格 一般의 基準 중 5) 自我客觀化(self-objectification)에 해당하며 특히 여기에 연루되는 인격 특질은 洞察力이다. 이러한 感情의 批判的 力量은 개인의 종교적 성숙의 試金石이며, 그리하여 성숙되지 않은 종교적 정서는 批判作用의 餘地가 배제된 非 省察的인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그러한 정서를 말한다.

2) 力動的 性格(dynamic in character) : 이 기준은 종교적 정서 작용에 있어서의 動機의 源泉과 관련된 국면이다. 개인의 감정이 자신의 肉體的 衝動이나 慾求에 의해 좌우되는 그러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자다. 이러한 사람에 있어서는 여전히 宗教的 情緒가 衝動이나 恐怖나 단순한 慾望에 의해 作動된다. 종교적으로 성숙한 자는 肉體的, 現實的, 外的, 快樂的 動機에 의해 감정이 作動하여 그 生이 決定되지 않고 보다 깊은 內面的, 精神的 價値를 指向하는 動機에 의해 그 感情과 行動이 결정된다. 이러한 성숙한 종교적 정서는 성숙한 인격 일반의 기준 1) 擴大된 自我意識(extention of the sense of self)에 해당되는 차원이다.

3) 一貫된 道德性의 生産性(productive of consistent morality) : 이 기준의 종교적 성숙의 상태는 어느 의미에서는 이 기준 안에 그 의미가 스스로 풀이되고 있다. 이 기준에 도달한 종교적 감정을 가진 자는 그 生活樣態가 변함 없이 一貫되게 道德的일 뿐 아니라 그것이 自身과 他人, 나아가서는 人類에게 有益을 줄 수 있는 生産的인 그러한 水準에 到達한 자다. 이 단계의 종교적 성숙은 성숙된 인격의 기준 6) 統一된 生의 哲學(the unifying philosophy of life)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Allport는 종교가 개인의 통일된 生의 철학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은 그의 一貫된 道德性이라고 생각한다.

4) 包括性(comprehansive) : 종교적 정서의 성숙이 도달하는 이 단계도 인격의 일반적 성숙의 기준 6) 統一된 生의 哲學에 부응하는 차원이다. 都是, 인격의 일반적 측면이건 종교라고 하는 특정 국면이건 성숙은 總括的 生의 哲學(all-inclusive philosophy of life)의 정립을 요구한다. 종교적으로 성숙한 자는 生의 許多한 局面들을 斷片的으로, 孤立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적으로 성숙한 자는 過去, 現在, 未來의 全 領域을 總 網羅해서 生을 省察하고 設計하고 또한 이에 부응하도록 營爲하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 뿐 아니라 全 同類人間(fellow human beings)은 물론 全 被造世界(fellow creatures)를 그의 生이 펼쳐지는 現實이요 同伴的 存在로 여긴다. 통일된 生의 철학은 이 宗教的 感情의 包括的 力量의 成就로 實現되는 것이다.

5) 統合性(integral) : 이 기준 역시 統一된 生의 哲學에 부응하는 종교적 성숙의 차원이다. 성숙한 종교적 감정을 가진 자는 現實의 問題들을 있는 그대로 正直하고 眞摯하게 대하며 이들 사이에 均衡있는 關係와 意味를 부여할 것을 모색한다. 이러한 사람은 直面하는 問題들의 靜的인 어느 한 斷面만 보지 않고 이들을 그 總體的 關係에서, 그리고

力動的 現實로 把握하여 이들 문제들의 渦中에서 營爲되는 生에서 調和롭고 統一된 意味를 實現하려 힘쓴다.

6) 徹底한 探索性(fundamentally heuristic) : 종교적 성숙이 도달하는 “探索的 宗教性(宗教的 感情)이란”, Allport에 의하면, “우리의 宗教心-宗教的 感情(belief)이 確認될 때까지, 그리고 그 종교심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妥當한 宗教心(belief)을 發見할 수 있게 해 줄 때까지 현재의 종교적 감정(종교심)을 暫定的인 것으로 留保케 하는 그러한 종교적 감정”<sup>52)</sup> 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수준의 종교적 감정(belief)은 현재의 자신의 信仰心(종교적 감정)을 宜當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보다 나은, 보다 깊은 단계의 信仰의 境地에로 부단히 志向해 가도록 探索하고 摸索하는 自我深化性(self-deepening)의 宗教的 情緒를 말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성숙한 감정은 絕對的인 確實性(absolute certainty)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으로 하여금 全心 全力(whole-heartedly)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 준다.”<sup>53)</sup> 고 Allport는 선언한다.

Allport는 위와 같은 종교적 성숙의 일반적인 기준과 관련된 논의에 이어 종교적 성숙의 일반적 개념을 규명한다. 그에 의하면 종교적 성숙의 개념은 개인의 종교적 감정의 外的 價値志向性으로부터 內的 價値志向性에로의 成熟의 程度(measured maturity value from extrinsic to intrinsic significance)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 한다.<sup>54)</sup> 外的 宗教(的 感情)는 本質的으로 功利的(utilitarian)인 것으로 이러한 차원에 있는 개인은 그의 종교적 감정이 自己 自身의 目的을 成就하는데 有益한 것을 追求한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內的 價値志向性을 지닌 성숙한 종교의 단계에 도달한 자는 종교를 萬物의 根據가 되는 價値로 보고 이 價値 自體를 追求한다. Allport는 성숙한 종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成熟한 宗教란 恐怖의 處置나, 絕對的이라고 여기는 것에의 同化의 樣態나 性的 昇華나 慾求充足의 주된 方便이 아니다. 生의 初期에 있어서는 종교란 이러한 모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成長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特定 慾求들은 宗教的 動機에 의해 充足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욕구는 종교적 동기에 의해 支配되는 것이다. ... 종교란 經驗界와 超經驗界의 모든 것(everything in experience and everything beyond experience)을 총 망라하는 總體로서 거기에는 科學的 事實이나 情緒的 事實을 包括, 受容하는 여지가 있다. 종교는 개인의 生의 理想的인 統合을 추구하는 渴望이요 自我委託(沒頭, 投入)(a hunger for and a commitment to, an ideal unification of one's life)이며, 그러면서도 언제나 모든 存在의 本質을 包括하는 統合概念의 下部에 있는 것이다.<sup>55)</sup>

52) Ibid., p. 72.

53) Ibid.

54) Allport, *The Person*, p. 148-149.

55) Ibid., p. 150-151.

이러한 종교적 성숙은, Allport에 의하면, 사람의 動機의 源泉인 “機能的 自律性”(functional autonomy)에 의해 發達한다고 한다. 그는 종교적 감정의 成熟의 系列인 宗教的 價値志向性의 外的 動機(extrinsic motivation)으로부터 內的 動機(intrinsic motivation)에로의 發達을 가능케 하는 요인을 종교적 감정의 “自體 推進力”(driving force in its own right)이라고 말하고 이를 機能的 自律性(functional autonomy)과 同一視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成熟한(機能的으로 自律化된) 종교적 감정은 개인에게 다른 모든 욕망들을 制御하여 價値있고 意味있는 生을 영위케 하는 原動力을 제공하는 最善의 道具가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미성숙한 本來의 狀態에서 벗어난, 즉 “機能的으로 自律化된,” 성숙한 종교적 감정은, 그 初期(未成熟한) 機能에 있어서는 그러했을 지 몰라도, 다른 慾望들에 의해 支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기능적으로 자율화된(성숙한) 종교적 감정은 더 이상 自己中心의 動機의 誘引力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다른 욕망들의 作動方向을 바로잡는 支配動機(master-motive)로 움직인다. 종교적 감정을 生의 영위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道具로 판단한 自我는 生의 모든 국면들을 解釋하고 개인에게 價値있고 意味있는 올바른 生의 構造에 부응하도록 살게 하는 原動力을 제공하며 이러한 生의 구조를 擴大하고 生活化하는 과업을 이 감정에게로 移讓한다.<sup>56)</sup>

이러한 次元에 도달한 성숙한 종교적 감정에는 個人的 生을 變化시키는 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Allport에게 있어서는, 啓示宗教의 超自然的 힘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개인의 生이나 행동이 단지 自己中心的, 功利的 動機, 바꾸어 말하면 外的 價値志向性에 의해 支配되지 않고 개인에게 意味있고, 價値있는 生의 構造에 따라 살게 하는 原動力을 제공하는 하나의 生의 道具에 不遇하다.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종교적 감정)은, 따라서, 개인의 personality의 構造內的인 한 要因으로서 이러한 종교성의 본질에 대한 究明에는 神學的 探究의 차원은 排除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는 經驗科學의 探究의 차원인 personality theory나 人間關係를 究明하는 行動科學이 動員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llport의 다음 말은 이를 雄辯的으로 表明하고 있다.

... 過去 時代의 預言者의 教訓들을 現代 技術時代에 適用함에는 人性(personality)이나 人間關係를 다루는 科學들로 부터의 特別한 도움이 要請된다.

이리하여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宗教的 차원에 대한 論議에는, 그것이

56) Allport, *The Individual*, p. 64.

美國이라고 하는 宗教-社會-文化的 土壤에서 成長한 하나의 著名한 학자에 의해 펼쳐진 것이라고 하는 事實에도 불구하고, 人間의 超自然的 世界에 대한 探究領域인 宗教에의 接近에서 그 固有한 探究手段인 啓示宗教(基督教)의 神學的 接近을 排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自體 안에 스스로 限界를 안고 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6.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Allport의 人性理論에 있어서의 personality의 成熟의 개념과 성숙이 도달해야 할 最高 次元으로서의 宗教와 관련된 그의 생각을 고찰해 보았다. 本研究의 主題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는 그의 이론이 다른 人性理論家들의 그것들과 구별되는 固有한 特性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 이론의 核心的인 骨子を 追跡하면서 그 理論의 줄거리를 概觀하였다.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는 本論文이 究明했듯이 當時 歐美의 心理學界, 특히 personality theory 探究의 世界에 普遍化되었던 人間性의 탐구를 人間의 實體性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그 外的, 社會的 關係를 바탕으로 해서 시도했던 社會心理學的 接近과 精神疾患者들의 非正常的인 行動이나 行動(生)의 源泉으로서의 抑壓된 人間の 潛在的 衝動性을 人間 本性의 根源으로 하여 이 바탕 위에서 시도했던 精神分析學的 接近등을 배격하고 精神-物理的(精神的=psychic-physical) 제 요소들의 有機的 統一體인 實體로서의 正常人의 個體性과 그에 의해 表出되는 正常的인 現狀들 및 다른 사람들과의 社會적 關係에서 生動하는 全人으로서의 力動性을 根據로해서 personality의 概念을 定立했다고 하는 점에서 누구의 그것보다도 높이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personality가 發達하여 到達해야 할 境地를 成熟(maturity)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나름대로 이 成熟의 樣態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興味로운 것은 人間性(personality)이 성숙하여 實現되는 最高의 內面的 狀態를 宗教性이라고 하는 次元에서 찾고 있는 그의 생각이다. Allport에게 있어서는 사람(person)이 內面的으로 成熟하여 實現하게 되는 人格(personality)의 最高 次元은 그의 宗教性이고 이 宗教性은 다름 아닌 그의 感情(sentiment)의 狀態 혹은 作用이다. 따라서 이 宗教的 感情(情緒)은 文字 그대로 어떠한 超自然的 實在나, 絶對者를 追求하는 人間 本性이나 그 窮極的 實體인 靈과는 判異하다. 여기에는 물론 超自然的 實在나 絶對者(神, 하나님)의 存在 그 자체는 認定되거나 믿기 어질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人間의 禮拜나 敬畏와 같은 宗教 固有의 行爲란 생각할 餘地가 없다. 그리하여 그것은 단지 人間의 現實世界 내에서 작용하는 自然的, 精神-心理的 狀態나 作用에 불과하다. Allport가 말하는 personality가 成熟하여 到達해야 할 宗教性 혹은 宗教的 次元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어서 이러한 性格의 宗教的 問題는 啓示宗教(基督教) 固有의 神學的 接近으로는 解明되지 않는다는 것이 Allport의 입장이다. 宗教의 問題를 단지 personality나 人間關係를 다루는 科學의 探究領域으로 格下하는 Allport가 宗教를 成熟된 人格이 成就해야 할 6 段階의 課業 중 가장 높은 6) 統一된 生의

哲學의 確立이라고 하는 次元과 同一 系列의 延長 線上에서 다루려는 것은 이러한 脈絡에 비추어 當然한 歸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書 籍

1. Allopri, Gorddon W.,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1837, 1961.
2. \_\_\_\_\_, *The Root of Religion*, Cincinnati : Forward Movement Publications, 1994.
3. \_\_\_\_\_,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0.
4. \_\_\_\_\_, *Becoming :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5.
5. \_\_\_\_\_, *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 Boston : Beacon Press, 1960.
6. \_\_\_\_\_,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 Henry Holt Company, 1961.
7. \_\_\_\_\_, *The Person in Psychology*, Boston : Beacon Press, 1968.
8. DiCaprio, Nicholas S., *Personality Theories : guides to living*, Phila. : W. B. Saunders Company, 1974.
9. Chaplin, James P. & Krawiec, T. S., *Systems and Theories of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8.
10. Hall, Calvin S. & Lindzey, Gardner,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57.
11. Sahakian, William S., ed., *Psychology of Personality : Readings in Theory*, Chicago : Rand McNally & Company, 1965.
12. Stagner, Ross,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27.

## 존 듀이(John Dewey)의 “철학의 개조”에 관한 연구

김 성 수\*

### 목 차

1. 서 론
2. 철학의 기능
3. 과학의 역할
4. 경험과 이성
5. 이상과 현실
6. 논리학의 개조
7. 도덕적 개념의 개조
8. 사회적 개조
9. 고찰 및 결론

### 1. 서론

존 듀이(John Dewey)는 1919년에 일본 동경제국대학의 초청으로 일련의 강의를 하였는데, 이 강의에서 그는 전통적 철학의 제 관념 및 사고방식의 개조를 해명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강의에서 듀이는 철학의 기본적인 의미와 목적은 사회의 문제로부터 유래하며, 따라서 철학은 고정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더불어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듀이가 개진하고자 했던 철학의 기본적 원리는, “철학의 독특한 임무와 문제, 그리고 내용은 공동사회생활에서의 고뇌, 긴장, 불안에서 싹터나와 거기에 한 형태의 철학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 따라서 언제나 전진하는 인간생활의 변천, 때로는 위기와 인간역사의 전환점을 조성하는 인간생활의 변천에 따라 철학의 특정한 문제들도 변천해 간다”는 것

\* 교수(기독교교육과)